입불·유지·와불…열암곡 마애불 최적 보존방안은

경주시·한국건설기술硏 등 마애불 보존방안 최종보고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중점 과제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의 입불(立佛) 등 보존 방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열암곡 마애불의 입불부터 현상유지, 절충안인 와불까지 다양한 보존방안이 소개됐다.

경주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한국건축역사학회는 7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보존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마애불상의 입불과 보존방안을 1년 3개월 동안 연구 용역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을 경청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책임 연구자 중 한 명인 이광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애불상의 원위치와 방향, 거동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마애불상의 본래 위치를 조각된 대형 암반과 인접 지역 암반들을 비교한 결과 현 위치에서 큰 이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조성 당시 참배자가 마애불상의 존엄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조각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참배 위치는 현재 마애불상에서 13.5m가 이격된 곳에 존재한다. 마애불상이 하부 계곡을 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참배자의 위치는 현재 보강 석축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참배했을 것"이라고 봤다.

마애불상이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고부조가 가능한 수직절리는 동-서 방향,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암벽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마애불상의 원 자세는 서쪽을 바라보는 형태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애불상의 입불 방안에 대해서는 슬링벨트를 활용한 안이 제시됐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슬링벨트 1, 2, 4개와 지그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슬링벨트와 지지하는 설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마애불상을 기중할 설비가 더 많이 설치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시나리오는 마애불상의 거동에 필요한 슬링벨트와 철골 지그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하다"면서 "여러 간섭 요건을 제거하기 위해선 인양 전에 불상 주변부 지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수 한국건축역사학회장(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은 마애불상 일원의 보존 방안으로 입불을 비롯해 현상유지, 와불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현상유지와 절충안인 와불은 확실한 역사적 근거가 없는 수리 및 복원 지양한다는 장점이 있고, 입불은 시대적 특징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면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여러 관계기관과 불교계가 의견을 공유해 어떤 방안이 가장 현 시대의 효율적 방안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월 25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보존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마애불 입불 이후 주변 정비 조감도.

1년여 연구용역 결과물 발표
원 위치, 현재 차이없음 추정
본래 자세는 서쪽 방향일 듯

슬링벨트 활용한 이동案 제시
벨트 많을수록 안정성 높지만
현 지반 기중시설 설치 어려워

입불, 유지案 함께 와불도 제시
남산 불교사찰전시관 설립 등
2028년까지 중장기로드맵案도

또한 한 교수는 남산 열암곡 일원 불교사원 터의 중장기적인 복원 로드맵에 대해서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열암곡 일원의 불교 유물과 유적들이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총체적 유산"임을 강조하며, 이 같은 가치를 담아내는 복원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 회장은 △기초-기본연구(1~2년) △심화연구(3~4년) △실행단계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열암곡 일원 사찰 영역 발굴 및 유구 정비와 입불 모의 실험, 활동 콘텐츠 개발 등을 제언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2028년까지 경주 남산 열암곡 일원에 '남산 불교사찰 종합전시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자문위원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은 "마애불상의 이동 방안은 슬링벨트 4개를 활용하는 시나리오4를 기준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철골 지그 설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애불상의 최적 관람 위치가 현재보다 높아졌다고 한다면 불상 지반부의 내진설계를 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절충안으로 제시된 와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피력됐다. 이승용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은 "와불은 입불과 현상유지의 중간점이지만, 두 의견 어느 것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심도 있는 정비 논의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송인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장(서울시립대 건축학부 명예교수)도 "와불에 대한 방안은 오히려 위치와 맥락의 속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입불 방안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불은 마애불상의 훼손 위험에 대해 대응하고 위치와 맥락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진정성의 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원상을 회복하고 해석과 설명을 통해 마애불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감동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화문광장 역사물길 연표, 일부 개정된다

간경도감 불경 간행 등…불교 관련 6건 추가

지난해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의 역사물길 연표<사진>석이 불교사를 왜곡하고, 가톨릭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가 최근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개정하기로 한 내용을 공개했다.

종평위에 따르면 개정안에 새롭게 반영될 기록은 △간경도감, 불교 경서 간행 및 언해기관 설립(1461) △원각사(원각사지 십층석탑) 건립(1464) △선교양종 및 승과 개재(1550) △휴정(서산대사), 〈선가귀감〉 편찬(1564) △유정(사명대사)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 3000인 귀환 △각황사(조계사) 건립(1910) 등이다. 불서 간행과 한글 보급의 역할을 담당한 간경도감을 비롯해 조계종의 본사가 된 원각사 등 불교를 넘어 역사적으로도 굵직한 사건들이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 1413년 '불교 교단 정비(선종·교종 사찰 36개로 통합)'은 '불교, 선종과 교종의 양종으로 통합'으로 변경됐으며, 1473년 불교탄압 일환으로 사족여성의 출가를 금지한 내용을 담아 논란을 불렀던 것은 삭제됐다. 또한 1565년 '문정왕후 사망, 보우 처벌, 윤원형 추방'이라는 다소 이해가 어렵고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문장은 '보우(허응대사) 입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696년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를 축출했다는 문장은 독도를 추가해 의미를 더했다.



종평위원장 도심 스님은 "서울의 대표적 장소인 광화문광장이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하는 장소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연표 오류 수정은 조선시대와 근대 역사의 주요한 기록들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는 역사물길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사업을 재정비해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총림 선암사 신임 주지에 승범 스님

단독후보 출마… 무투표 당선
9월 1일부터 4년 임기 시작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의 제32세 주지에 승범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승범 스님은 7월 26일 순천 선암사 정묵당에서 열린 전산총회에서 선거인단 전체 133명중 97명 참석한 가운데 선암사 주지로 선출됐다. 스님은 9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승범 스님은 선암사 사법 사규상 무투표로 당선돼 이날 당선증을 교부 받았다.

승범 스님은 당선 소감을 통해 "선암사는 제2의 도약의 시대가 됐다. 전체 대중이 혼연일체가 돼 선암사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주지가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축사를 통해 "출가도량이면서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 선암사"라며 "열심히 노력해서 종단에 득이 될 수 있는 총무원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범 스님은 1976년 선암사에 지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사미계를 수지, 1991년 태고종 중앙금강계단 덕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태고종 불교전문교육원을 4년간 수학 후 졸업하고 선암사의 교무와 상임포교사, 종회의원, 재무국장, 박물관장, 총무국장 주지 직무대행 등 오랜 기간 선암사의 중요직책을 역임했다.

태고종 정수원 교육원장, 종권수호위원회 위원, 광주전남 종회의원, 광주전남종무원 종회의장, 중앙종회 종회의원, 선암사 비상수호대책위원, 태고종·조계종 각 5인 협상위원, 총무원 종책자문위원 등 종단과 지역 교구발전에도 헌신했다.

태고종으로부터 2014년 종사 법계를 품수를 받았으며, 2015년에 종단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상품 공통사항
럭셔리 올포함!
국제선 항공료, 호텔(2인1실), 전 일정 식사, 순례지 입장료, 기사/가이드 비용, 전용차량, 2억원 여행자보험

인도/네팔 7대성지순례 10일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동계 시즌 특가! 270만원 부터
주 요 일 정 :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체크포인트 : 특급호텔(성지구간 일급호텔), 열반당 가사 공양, 인도/네팔 비자 비용 포함, 성지순례 구간 한식 요리사 대동, 전 구간 불교전문 가이드









라오스 완벽 순례 6일
주요 불교 성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액티비티 체험까지 多!
출발일 2023년 11월 18일 집중모객! 동참금 165만원
주 요 일 정 : 탓루앙-탁발 행렬 참관-꽝시 폭포-왓씨엥통-탐쌍/탐남 동굴-카약 체험
체크포인트 : 특급호텔, 탁발 행렬 참관, 카약 체험, 블루라군







탓루앙